

이름도 생각도 남달라

# 달라도 좋아요!

이야!  
신난다!



한 학기 한 권 읽기

「난 남달라」

김준영 작가와의 만남

함께 읽은 금마초등학교 친구들

인천광역시교육청신트리도서관





이름도 생각도 남달라

# 달라도 좋아요!

발행일 | 2025년 12월

지은이 | 금마초등학교 학생 26명

발행처 | 인천광역시교육청신트리도서관 독서문화과

제 작 | 인천광역시교육청신트리도서관

ISBN | 979-11-94496-84-7(75800)

\* 이 책은 인천광역시교육청신트리도서관의 2025년 교육과정 연계 읽견쓰 「책 읽는 학교」 금마초등학교의 마음을 모아 제작된 책입니다.

\* 이 책에 수록된 글과 그림, 사진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이름도 생각도 남달라

**달라도**  
**달**

**좋아요!**  
**ㅎ**

---

한 학기 한 권 읽기 「난 남달라」

김준영 작가와의 만남



# 나의 독서감상문

책이름

나 남달라

지은이

김지영

출판사

구인서관

주인공

남달라

읽은날짜

2025년 9월 12일

책을 읽고 기억나는 것과 느낀 점을 생각나는 대로 적어 보세요.



남달라 가수영을 안배한다고 했고 남달라는 수영을 할 줄 아는데 가수영을 안배대 남달라 인 친구는 뽕뽕수영, 회오리수영

안배대 수영을 배웠대 수영 선생님은 남달라한테 수영

공을 세라 고래는... 남달라 는 수영을 안배대 남달라는

수영을 안배한다고 했어 아빠가 왜 수영을 안배우게 하냐고

남달라는 수영이 힘들다고 해서 안 배려 남달라는 쿡쿡 찌기,

얼굴 주먹바라보기, 얼음 집 치기, 물고기 잡기 등 해야 할 지름살과

그러다가 남달라가 넘어져서 미끄럼틀을 타다 재미있다고

했다 남달라 친구는 미끄럼틀이好玩 재미있다고 했다 한 친구

배대 남달라는 미끄럼틀고수가 되다 남달라는 미끄

럼틀을 타다가 바다 표범을 만났다 바다 표범이 왔을 때

포옹아 비켜 미끄럼틀 대회에 가 아 해 선생님이 미끄럼틀

대회에 준비를 했다 바다 표범들은 사냥감인데

남달라는 속속가 구멍으로 숨어서 리저리 피했다



3학년 | 반 2번 이름 김지영

김지영



# 나의 독서감상문

책이름 **난 남달라!**

지은이 **김준영**

출판사 **국민서관**

주인공 **남달라**

읽은날짜 **2025 년 9월 12 일**

책을 읽고 기억나는 것과 느낀 점을 생각나는 대로 적어 보세요.

달라가 "선생님! 말미잘 수영 같은 건 왜 해야 해요?"라고 해서 달라가 진짜 다른 펭귄이랑 다르다는 걸 알게된 후에 더 재미있게 보았다. 집에 오자마자 달라가 "나 수영 그만 배울래요!"라고 아빠한테 말할 때 달라 아빠가 안돼!라고 할 줄 알았는데 "왜 그러니? 달라야."라고 해서 신기했다. 그래서 달라가 "말미잘 수영 같은 건 너무 힘들어요. 재미도 없고요. 난 헤엄칠 줄도 아는 걸요!"라고 이유를 말하니깐 아빠가 허락해주어서 미끄럼틀 매일타서 미끄럼틀 잘타게 되서 대회에서 달라가 1등을 했다. 그래서 달라 아빠가 "우리 달라 정말이다!"라고 해서 내가 칭찬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나중에 달라가 미끄럼틀 코치가 되어서 많은 선수들을 가르쳤다고 해서 재미있었다. 책 제목인 **난 남달라!**가 두가지 뜻이어서 더 재밌었다.



3학년 1반 13 번 이름: 김라희

인천금마초등학교 금빛마루 도서관

# 독서 감상문

3 학년 2 반 15 번

이름: 박셀아

책이름	난 남달라	지은이	김준영
출판사	국민서관	작성일	9월 12일

처음에는 이름도 남달라인지 몰랐는데 이제는 남달라가  
 이름도 맞다는 걸 알았고 이제는 남달라가  
 앞에 쓱쓱 밝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달라는  
 재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남달라가 미끄럼  
 대회에서 등하게 브라운 재도 등을 해보고  
 신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남달라는 자신에  
 매력에 푹 빠진 것 같아요. 딸라의 아버지는  
 딸라의 행복을 이룩해준 멋진 아버지 같고 딸라  
 에게 지드 배인 친구요. 기억에 남는 장면은  
 남달라 처음에 미끄러진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남달라의 행복이 나온 것  
 같아서 예요. 그리고 남달라는  
 자신에 행복을 찾고 싶은 장면인 것  
 같아서요. 그리고 김준영 작가님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김준영 작가  
 님 난 남달라 책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인천금마초등학교 금빛마루 도서관

# 독서 감상문



3 학년 2 반 7 번

이름: 양유준

책이름	난 남달라	지은이	김주영
출판사	국민서관	작성일	9월 12일

난 남달라 책을 보고 남달라가 미끄럼틀 대회에서 1등을 한게 재미있었다  
 왜냐면 갑자기 미끄럼틀 대회를 했다는게 재미있었다  
 그리고 놀라운건 바다표범을 기명 앉세우고 1등을 한게 매우놀란다 그리고 달라  
 친구들이 한마디씩 칭찬을 하니 보기 좋았다 그리고 위머는 수영선수가 되고  
 쿨키는 요리사가 풀리는 경찰이돼었고 마지막으로 달라가 미끄럼틀 포  
 차가 되었다는게 맘이 멋지다 그리고 달라가 미끄럼틀을 타다가 물에 빠졌  
 다 그래서 남달라는 수영도 해볼까라 하는데 남달라가 수영을 어떻게 할  
 지 궁금하다 그리고 나도 남달라처럼 잘하는게 맘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분받고 싶은 점은 어떤일을 해도 포기하지 않는점을 분받고 싶다





# 나의 독서감상문

책이름 **남달라**

지은이 **김준영**

출판사 **국민서관**

주인공 **남달라**

읽은날짜

2025 년

9월

12일

책을 읽고 기억나는 것과 느낀 점을 생각나는 대로 적어 보세요.



처음에는 남달라 가 다른 친구들과 달라서 이상했는데  
 남달라 가 자기 가하고싶은것을 찾고 그럴 즐거워서  
 남달라 가 다른친구들과 다르다는게 흥미롭고 신기합니다.  
 그리고 남달라는 제게 친구들과 꼭 똑같이  
 하지않아도 된다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달라  
 가 미끄럼 대회에서 등한게 신기했습니다  
 미끄럼을 탈때 솔로로 바다속으로 들어갈데 바다속  
 바다 생물이 너무 오랜만에 보서 수영을도 하고싶어하는 남달라가  
 귀여웠고 또책읽고싶었습니다. 그리고

남남달라 책에서 친구들과 똑같이 할려고  
 하지말고 나 자신 이하고 싶어하는 걸 하라고  
 하는것 같았 습니다 코렁글 -



3학년 2반 19번 이름 : 선유라



# 나의 독서감상문

책이름 **난 남달라**

지은이 **김준영 작가님**

출판사 **국민서관**

주인공 **남달라**

읽은날짜 **2025년 9월 11일**

책을 읽고 기억나는 것과 느낀 점을 생각나는 대로 적어 보세요.



이번 내가 읽은 책 '난 남달라'를 고른 재미있는 이유는 '난 남달라'가 어떤 뜻이 있고 다른 왜곡된 보다 얼마나 남다른지 호기심의 발발로 글과 그림보다 등장인물은 남달라와 달라의 친구들이다. 쿠쿠, 풀리 그리고 달라가 아바바 달라에게 물어봐 나 큰 바다표범이 7마리가 있다. 난 남달라 나의 수영수평을 배우는 달라는 수영을 아바바 내가 수영을 배워야 할지라는 생각이 남고 아바바에게 가서 "저 수영 그만 돌려요" 라고 말하고 싶



구들이 수영을 배우고 있을 때 달라는 놀다 우편히 정말로 우편히 넘어질텐데... "어! 재미 있는데 어?" 그리고 어느 날 달라가 미끄럼틀 타다 바다표범 '배'에 부딪혀 미끄럼 대회에 우편히 참가하였지만.. 바다표범들이

4학년 2반 23번 이름이 하은

독서감상문  
이름



# 나의 독서감상문

책이름 **난 남달라!**

지은이 **김주영** (작가님)

출판사 **국민서관**

주인공 **달라** (펭귄)

읽은날짜 **2025** 년 **9** 월 **12** 일

책을 읽고 기억나는 것과 느낀 점을 생각나는 대로 적어 보세요.



기억 나는 것은? : 미끄럼틀

생각나는 것 : 달라가, 다른 곳으로 미끄러지면서, 쿵쿵뛰기, 얼음구멍보기, 얼음집 짓기, 물고기잡기등, 여러동작을 미끄러지면서 막 동작하는

모습이 신기하다,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가지로 잘하는것 마냥, 펭귄이 어떻게, 사람들이 동작을 여러가지 잘할수가 있긴하나?

싶게, 난 남달라! 책에서 궁금했다. 그치만, 왜 "난 남달라!" 하면 하고있는 달라가, 도대체 왜? 미끄럼을 좋아하니까요? 궁금

하고, 달라는, 물론, 훌륭한 "수영코치가" 도 있었지만, 난 아직 꿈을 정하고, 이루는것은 아직 경험할수는 없었지만, 어릴때

경험을 많이 하여야, 나중에 훌륭한사람이 될수도 있다고 믿기때문에, 나도 꿈을 이루고 싶다. 왜냐하면, 달라도

꿈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 한지연 -



3학년 2반 25번 이름: 한지연



# 나의 독서감상문

책이름 **난 남달라!**

지은이 **김준영**

출판사 **국민서관**

주인공 **남달라**

읽은날짜 **2025** 년 **9** 월 **11** 일

책을 읽고 기억나는 것과 느낀 점을 생각나는 대로 적어 보세요.



이 책의 제목에 여러 뜻이 있는 것이 신기해서  
 읽었어요. 처음에는 남달라가 물고기를 먹지 않는 줄  
 알았어요. 남달라는 말미잘 같은 괴상한 수영말고  
 다른 재미있는 것을 하고 싶어서 아바에게  
 다른 것을 하고 싶다고 말하고 다른 놀이를  
 하다가 아~주 우연히 미끄럼틀에 재미가  
 붙었습니다. 남달라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게 되게 제일 인상적이었습니다.  
 남달라는 다른 평민들과는 좀 다르고 특별한 것



같아요. 아바도 아주 친절 해요. 나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이루면 얼마나  
 부듯한지 알 게 되었어요! 저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꼭 이루고 싶어요!  
 작가님, 그림을 좋아하는 마음 영원히길 바래요!

화이팅!

4학년 2반 18번 이름 김다희



# 나의 독서감상문

책이름 남달라 지은이 김준영

출판사 국한서관 주인공 남달라

읽은날짜 2025 년 이 월 12 일

책을 읽고 기억나는 것과 느낀 점을 생각나는 대로 적어 보세요.



남달라야 너는 수영은 못하지만 용기가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 나는 수영을 못해서 좀  
 속상하지만 너는 영웅용기가 있어서 용감한 것  
 같아 나는 긴 미끄럼틀을 못타지 못해서  
 못타 너는 긴 미끄럼틀 잘 타서 너는  
 너무 부러워 그리고 남달라야 너는 미끄럼틀  
 에서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하지 않았어  
 너는 너가 다치지 않고 살아서 돌아온  
 거야 그리고 너는 미끄럼틀이 되고 싶어  
 내가 부러워 왜냐하면 나는 미끄럼틀이  
 되고 싶지만 긴 미끄럼틀을 잘 못타  
 서 미끄럼틀을 못타 그래서 못타는  
 용기가 많은 남달라야 남달라야 사랑해



3학년 1반 18번 이름 김태린

인천금마초등학교 금빛마루 도서관

# 독서 감상문

4 학년 1 반 10 번

이름: 조아원

책이름	난 남달라	지은이	김준영
출판사	국민서관	작성일	2025년 9월 11일

다른 이 책 제목에서 주인공이 다른 펭귄과 남달라 것 같다. 달라 아버지는 달라가 수영을 그만 둔다고 했을 때 허락을 하고 달라 마음대로 허락했지만, 만약 내가 달라 아버지 라면 수영을 계속 다니게 할 것이다. 달라는 미끄럼 조치가 되었다. 나도 달라에게 미끄럼을 배워보고 싶다. 나도 달라처럼 즐거운 것을 찾을 것이다. 달라는 정말 다른 펭귄과 다를 것 같다. 달라는 다른 펭귄과 남달라지만 즐거운 것을 찾았다. 만약 내가 달라 라면 수영 학원을 계속 다녀 물고기를 많이 잡아 요리를

할 것이다. 안녕 하세요 김준영 작가님

난 남달라 이라는 책 정말 장황합니다

다. 남달라는 다른 펭귄과 남달랐습니다.

그럼에도 즐거운 것 미끄럼을 찾을 것이

정말 다 행복합니다. 작가님 사랑합니다.





# 나의 독서감상문

책이름 난 남달라!

지은이 김준영 작자성

출판사 국민서관

주인공 남달라

읽은날짜 2025 년 9 월 11 일

책을 읽고 기억나는 것과 느낀 점을 생각나는 대로 적어 보세요.

미끄럼 대회 때 표범들이 싸우고 있을 때 달라가 ~~속속 피하러~~ ~~구성을~~ 하는 장면이 인상 깊었습니다 또 달라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인상 깊었습니다 원래 제목만 보면 자기가 남달라라는 거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름도 남달라 였다니 재밌었습니다 달라가 자신이 좋아하는 것(미끄럼틀 타기)를 찾고 미끄럼틀 코치가 되어 선수들을 가르치게 되었다니! 그리고 이제 수영의 재미를 알고 수영도 배우볼까!

라는 다짐을 가졌으니 수영도 잘하겠군!

느낀점은 저도 제가 좋아하는 것을 찾고

목표를 세워서 꿈을 이루고 싶어요!



4 학년 2반 19번 이름 배지윤

# 독서 감상문



4 학년 1 반 11 번

이름: 조아준

책이름	난 <sup>나</sup> <sup>나</sup> 달라!	지은이	김주영 김진영
출판사	국민서관	작성일	2025년 9월 11 일

이 책을 알게 된 것은 도서관에서 미로라해서이다.

하지만 여섯 번째 번이 오자마자 이 책을 보았다. 오래 전의 친구들

겨우겨우 이 책을 샀다. 이 책은 아포지, C지, 포지, 속표지, 내용까지

꼼꼼히 보았다. 줄거리는 달라가 친구들과 수영을 배우고

있다. 모두가 수영을 배웠다. 어느 날 달라가 선생님께 미로라해서

이 피로라해서 고를 수 있다. 선생님이 그 책을 읽어 주었다. 집에 와서

아빠한테 수영을 가르쳐 주었다. 아빠도 좋아했다.

달라는 여름 집사기, 구명바라보기 등 다양한 일을 했다. 그러다

우연히 미끄럼틀을 탔다. 달라는 미끄럼틀을 아주 잘 탔다. 그리고

재미이게 탔다. 그러다 대회에 참가하고 우승했다.

그 책을 읽고 난 후 자기가 하고 싶은 미로라해서 피로라해서

지은이 같다. 아포지, C지, 포지, 속표지

내용까지 꼼꼼히 보니 아주 재미이게 탔다.





# 나의 독서감상문

책이름

난 남달라!

지은이

김준영

출판사

국민서관

주인공

남달라

읽은날짜

2025년

9월

11일

책을 읽고 기억나는 것과 느낀 점을 생각나는 대로 적어 보세요.



난 오늘 김준영 작가님의 대표책인  
 난 남달라! 라는 책을 읽었다 읽은  
 이유는 다음 주 월요일에 작가님이 오셔서  
 이다. 책의 내용은 남달라 라는 펭귄  
 있는데, 수영을 안했다. 왜냐하면 수영을  
 하기 싫어서다. 남달라는 아바한테가  
 수영을 끊고 다른 펭귄들이 수영을 할때  
 남달라는 우연히 미끄럼을 타게 된다. 재미  
 있어서 매일 타게 된다. 어느날 바다표범  
 에 의해 미끄럼대회를 나갔다. 대회  
 에서 바다표범등을 제치고 1등을 한다  
 그 이후로는 남달라는 바다 미끄럼  
 코치가 된다. 인상깊은 장면은 책앞표지  
 인 남달라가 남다른게 미끄럼 타는 장면이  
 인상깊었다. 나도 남달라처럼 새로운 걸 도전해 봐야겠다



4학년 1반 18번 이름 양솔지



# 나의 독서감상문

책이름 난 남달라,

지은이 김준영 글그림

출판사 국민서관

주인공 달라

읽은날짜 2025년 9월 11일

책을 읽고 기억나는 것과 느낀 점을 생각나는 대로 적어 보세요.



오늘 난 남달라라는 책을 읽었다 월요일에 김준영작가가 와이저에 이걸 읽어야 해 읽었다. 책표지가 예뻐서 너무 기대했었다. 책을 읽기 전에 무슨 내용일까? 궁금했다. 이 내용은 달라는 수영을 할 줄 알지만 수영을 하기 싫어 미끄럼틀을 타다가 우연히 대회에 나가 금메달을 탔다 친구들도 머리까지 직업이 생겼다 달라는 어느날 물에 빠지고 마는데 물에 관심이 생긴다. 나는 달라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보는 게 인생감있다.

달라는 아주 똑똑한 아이 같다. 이 책을 읽고 하고 싶은 일을 찾아보자는 느낌이 들었다. 나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도전해 보아겠다.



4학년 1반 14번 이름 김은

인천금마초등학교 금빛마루 도서관

# 독서 감상문

3학년

| 반 16 번

이름: 김민예

책이름	난 남달라	지은이	김준영
출판사	국민서관	작성일	25, 9, 12

난 남달라 책을 읽으면 자신감이 생긴다 가장 재미있었던 장면은 달라가 우연히 미끄러진 장면이 재미있었다, 그리고 달라가 미끄럼을 타니 나도 타보고 싶었다, 그리고 달라가 바다표범들과 미끄럼 대회를 내세워 열등을 하는 달라가 신기하고 또 신기했다, 왜냐하면 오랜 연습한 바다표범이 있는데 일련도 연습을 안한 달라가 열등을 해서 신기했다, 그리고 달라 친구들이 무슨 직업이 되는지 나오는 장면이 조금 궁금했다 왜냐하면 달라 친구들이 어떻게 해서 수영선수가 되고 경찰이 되고 요리사가 되는지 궁금했다. 위메는 수영을 열심히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쿡와 풀리는 경찰과 요리사가 되어서 궁금했다, 펭귄이 경찰과 요리사가 되었다고 해서 신기하고 궁금하다, 미끄럼은 얼마나 재미있을지도 궁금하다.





# 나의 독서감상문

책이름 난 남달라!

지은이 김준영

출판사 국민서관

주인공 남달라

읽은날짜 2025년 9월 12일

책을 읽고 기억나는 것과 느낀 점을 생각나는 대로 적어 보세요.

남달라는 남다른 펭귄이에요. 수영을 안 하거든요. 하지만

수영을 할 줄은 알아요. 하지만 달라는 수영을 하기 싫다고 아바한테  
말했죠. 할 수 없이 아바는 달라한테 마음대로 하라 했죠.

그래서 달라는 친구들과 다른 놀이 놀았어요. 쿵쿵 뛰기, 얼음 구멍 바라보기,  
얼음집 짓기, 물고기 잡기... 그러다 우연히, 아주 우연히 미끄러졌어요.

달라는 그게 아주 재밌었어요. 그래서 수영 대신에 미끄럼 타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날, 달라는 미끄럼 타기가 어떤 물개와 부딪쳤어요!

그 물개는 미끄럼 대회에 나갈래요 했죠. 달라도 미끄럼 대회에 나갔어요.

달라는 미끄럼을 잘 타기 때문에 우승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어느 날, 달라는 미끄럼을 타다가 풍덩! 바다에 빠졌어요.

오랜만에 달라가 바다를 보니 신기해했어요. 그러더니

수영을 했답니다.

이 책을 읽고 남달라는 아주 자신감이 넘치는 주인공인 것

같아요. 다른 물개들은 대회에서 아주 떨어졌지만 남달라는

3학년 2반 5번 이름 박서후





# 나의 독서감상문

책이름 난 남달라!

지은이 김준영 작가님.

출판사 국민서관

주인공 남달라

읽은날짜 2025 년 9월 11 일

책을 읽고 기억나는 것과 느낀 점을 생각나는 대로 적어 보세요.



나는 오늘 《난 남달라!》라는 책을 읽었다. 도서관 수업으로 읽은 책인데, 책 표지를 보니 펭귄이 슬라이드를 타고 있어서 '슬라이딩하는 내용인가?'하고 생각했다.

책에 나오는 펭귄은 '남달라'라는 이름을 가진 펭귄이었다. 달라는 수영을 아주 싫어했다. 그래서 수영 대신 자신이 하고싶은 것을 찾다가 미끄럼을 찾았다 그래서 미끄럼을 계속 타다가 얼떨결에 미끄럼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다. 그런데 예상 밖으로 달라가 1등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나는 달라가 미끄럼대회에서 1등을 한 장면이 인상 깊었다. 달라가 1등을 한건 너무 예상 밖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달라처럼 내가 하고싶은 것을 찾아 열심히 하고 싶다. 더 멋진 나를 만들때까지 파이팅!

4 학년 1 반 17 번 이름 심서린



인천금마초등학교 금빛마루 도서관

# 독서 감상문

4 학년 2 반 7 번

이름: 배가서  
김

책이름	나 남달라 +	지은이	김준영 작가님
출판사	푸른서관	작성일	2025년 4월 12일

나는 책에 달라를 받을 때 달라가 귀여워서  
귀여운 스토리가 펼쳐질 줄 아는데 신비한 내용  
여서 더욱 좋았다. 그리고 작가님이 꼼꼼이 보라  
할 처음에는 왜그런 말을 하셨는지 궁금 했는데  
왜인지 알게 되었다.

첫째 앞표지와 뒤표지가 연결된다  
달라가 비글림들을 타고 내려와서 뒤표지에 수업을  
하는게 이어지는 것 같다.

둘째 위대본영어는 이기대본영어이다  
크고 큰 밑에 기억을 붙이면 크이기태본에 오리사가 된다  
풀리는 뒤에 스크롤하면 경찰이기에 문의  
경찰이 된다. 이렇게 이즈터이그  
가있다 이제부터 꼼꼼이 책을 읽어야





# 나의 독서감상문

책이름 **난 남달라**

지은이 **김주영**

출판사 **국민서관**

주인공 **남달라**

읽은날짜 **2025** 년 **9** 월 **12** 일

책을 읽고 기억나는 것과 느낀 점을 생각나는 대로 적어 보세요.



보로, 평수, 남달라까지 이어지는 친숙한 캐릭터라 더 내용이  
 궁금했다. 달라와 달라친구들이 꼭 특징이 모양은 우리반 친구들 같았다.  
 뱅뱅수영, 호모리수영, 클리잘수영이 나에게 수학, 국어, 과학같은  
 수업 같았다. 달라의 말을 존중해주는 달라에 아빠가 꼭 나의 말을 존  
 중해주는 우리아빠가 생각났다. 달라가 미끄럼 대회에서 등을  
 했을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열심히 노력하면  
 내꿈이 상상이 아니라 현실로 바꿀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다.  
 달라가 수영대회가 아니라 미끄럼대회 등한게 친구들에게 꼭  
 수영만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도 성공 할 수 있다 라는 영양력을  
 보여주었다. 맨 마지막장에 달라가 "수영 한번 해 볼까?"라고  
 말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 어른이나 아이나 배움에 기회는 있다  
 라는 것을 알았다. 앞면지에는 달라와 친구들에게 노력이 보이면  
 뒤면지에는 달라와 친구들이 노력한 결과가 보인다.



3 학년 1 반 25 번 이름 **한지수**



# 나의 독서감상문

책이름 **난 남달라!**

지은이 **김준영**

출판사 **국민서관**

주인공 **남달라**

읽은날짜

2025년

9월

12일

책을 읽고 기억나는 것과 느낀 점을 생각나는 대로 적어 보세요.



처음에 책 이름이 "난 남달라!"여서 책 이름 뜻이 "나는 남들과 다르다"라는 뜻인 줄 알았는데 김준영 작가님 설명을 들으니 책 이름 뜻이 "나는 남들과 달라" 그리고 "내 이름 남달라"라는 뜻도 있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첫 장면에 펭귄은 무조건 수영을 잘 해야 되고, 수영을 꼭 배워야 한다는 편견이 있었는데, 가끔 우리도 하고 싶은 걸 할 때도 있고, 사람마다 하고 싶다는 게 다를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다. 가끔 사람들은 자기의 꿈을 짐짓 쉽게 찾을 수도 있는데, 남달라는 자기의 꿈을 빨리 찾은 것 같아 정말 대단한 것 같다. 그리고 남달라의 친구들은 다들 각자의

꿈을 찾고, 다 다양한 꿈이어서 남달라의 친구들 남달라 다 너무 멋지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얻은 생각은, 앞으로 남 눈치 안 보고 내 꿈을 이룰 것이다. 난 남달라 책을 읽고 생각한 게 많았던 거 같다!



3학년 2반 14번 이름 **김라엘**

인천금마초등학교 금빛마루 도서관

# 독서 감상문

4 학년 2 반 5 번

이름: 노하민

책이름	난 남달라	지은이	김준영
출판사	국민서관	작성일	2025년 9월 11일

오늘 도서관에 가서 선생님들이 난 남달라 라는 책을 읽게 되었다.

책을 읽기 전 펭귄야-모험을 하는 이야기인 줄 알았다. 난 제목에 의미가

나는 다른 친구들과 달르라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펭귄 이름이 남달라라는 말에

깜짝 놀랐다. 꼬바펭귄 남달라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인 미끄럼이라는 것을

찾아 대회의에서 금매달을 라는 내용이  
난 주인공이 내 의견을 잘 표현한다고

생각했다. 또 대회에서 준왕 하기 직전이 인상 깊었다.

왜냐하면 모든 금매달을 목숨내고 있는데 남달라만 금매달을





# 김준영 작가와의 만남 소감

※ 김준영 작가의 강연을 듣고 느낀 점을 적어보세요.

일 시

2025년 9월 15일 월요일

강연장소

강당

4학년 2반

이름: 배준서

소감문

나는 오늘 신나는 경험을 했다.  
 바로 작가님 중에 그림책 작가 김준영  
 작가님이다. 작가님과 만나서 정말 좋았다.  
 좋은 점 세 가지를 지금 여기 해보겠다.  
 첫째 남 달라를 쓴 레기와 쓸데까지  
 이야기 등 많은 것을 말해주셨다.  
 둘째 본격적으로 작가님이 쓰신 책을  
 소개 했다. 그리고 책이 태어난 날 즉 발행일  
 을 보는 법도 알려 주셨다. 또 책을 색칠한  
 방법도 알려 주셨다. 그리고 더미북이라는  
 것도 알려 주셨다.  
 셋째 알기를 쓸데 효과 적하게 기억하는 방법  
 도 알려 주셨다. 그리고 작가님이 좋아하는 음식과 나라  
 작가님도 여기 해주셨다. 여러가리를 알게 되고  
 작가님도 만나서 참 좋은 경험이다.

작가님 감사해요

작가와의 만남 후  
나의 표정은?





# 김준영 작가와의 만남 소감

※ 김준영 작가의 강연을 듣고 느낀 점을 적어보세요.

일 시 2025년 9월 15일 월요일

강연장소 강당 4학년 2반 이름: 김하은

소감문

강당에서 김준영 작가와 만나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가졌다. 내가 모른 것도 알게 되고 신기한 이야기, 웃기 이야기 도 많이 하셔서 흥미롭고 집중도 살았다. 인상 깊었던 이야기는 저티곰새끼 였다. 돌고래들이 너무 귀엽고, 멋져서 너무 인상 깊었다. 제돌이 춘삼이가 바다에 잘 적응하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싸인 받을 때 나에게 해주신 말씀인데 영상에는 안 보이지만 세돌이라는 돌고래도 있다고 들었다. 지느러미에 해초 올리는 걸 좋아한다 하겠다. 싸인 받을 때 3학년이 앞으로 가서 속상했지만, 김준영 작가님이 세돌이 이야기를 나한테만 해주셔서 기분이 좋고 놀라웠다. 그리고 이야기 하실 때 편집자 이야기를 하셨는데 관심이 많았다. 또 하고 싶다.

작가와의 만남 후 나의 표정은?





# 김준영 작가와의 만남 소감

※ 김준영 작가의 강연을 듣고 느낀 점을 적어보세요.

일 시 2025년 9월 15일 월요일

강연장소 강당 4학년 1반 이름: 김윤

소감문

오늘 내가 좋아하던 김준영 작가님을 만났다  
 강연을 들 난 뒤 김준영작가님이 대단하다  
 는 것을 알게 되었다. 김준영 작가님이  
 정말 책들 하나하나 정말 저기의 인생을 씌어 만든  
 게 대단했다. 생각해보니 유튜브에서 봤는데 정말  
 남달라네. 이야기와 김준영 작가님에 이야기가  
 조금씩 똑같은 데가 있었다. 이 강연을  
 듣고 느낀점이 있는데 그림하나 하나가 정말  
 의미가 있다고 느꼈다. 김준영 작가님이 수학을  
 싫어한다는 걸 알았다. 나는 김준영 작가님의  
 옷이 예뻐서 기뻐야한다. 정말 옷이 예뻐했다  
 작가님이 무슨 작가를 좋아하는 알고 싶었는데 알게  
 되었다. 정말 작가님들의 책하나하나의 모의  
 인생이 있어서 정말 작가님들의 존경하고 대한  
 한껏 잘라 작가님을 존경합니다! 김준영  
 작가님 그리고 또 다시 새문은 책을 만나  
 면 좋겠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님이  
 김준영 작가님이어서 오늘 기분이 좋았다

작가와의 만남 후  
나의 표정은?



인천금마초등학교 금빛마루 도서관





# 김준영 작가와의 만남 소감

※ 김준영 작가의 강연을 듣고 느낀 점을 적어보세요.

일 시 2025 년 9 월 15 일 월요일

강연장소 강당 4 학년 1 반 이름: 심서린

소감문

나는 오늘 김준영 작가님을 만나 강연을 들었다. 책도 재미있었지만, 직접 만나니 너무 신기하고 행복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오늘 처음 뵙지만 강의를 열심히 하시니 약간 친근함?도 느꼈다.

난 달라가 남자인 줄 알았는데 여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 작가님의 성격도 잘 알게 되었다. 김준영 작가님은 되게 친절하고 다정한 느낌이 많이 났다.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도 다정하게 대해주시니 더욱더 친근한 느낌이 많이 난 것 수도 있다.

기억에 남는 점은 돌고래 신문에 작가님이 찍으신 사진을 보여주셨을 때였다. 신문에 자신이 찍히긴 어려운데 찍히셨다니, 대단함 반, 신기함 반이었다.

우리 집에 작가님 책이 없어서 《난 남달라》 외에 책들 내용을 더 알고 싶었는데 《난 남달라》 위주로 강연하는 것이어서 아쉬웠고 궁금했다. 그래도 오늘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월요일이었다!

작가와의 만남 후 나의 표정은?





# 김준영 작가와의 만남 소감

※ 김준영 작가의 강연을 듣고 느낀 점을 적어보세요.

일 시	2025년 9월 15일 월요일	
강연장소	강당	4학년 2반 이름: 이하은

김준영 작가님을 만난 소감♡ 김준영 작가님께서 달라질 어떻게 만들었는지 물어낸 게기 오 작가가 데기 전 재미있는 것 들 하 었는 지와 달라와 작가님(김준영)이 단 문 점과 작가님의 친구들, 이 4권의 책 들 소개를 해주셨는데 너무나 알뜰하고 내 가 작가가 되는 생각을 해보게 도는데 짜짐♡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요. 정말 재미있는 경험이고 그 책들의 생김(피 냐날)은 보람있고 배움까지 알려주신 김준 영 작가님께 감사의 마음을 보내주겠습니다. 내가 그 난 남달라의 글쓰기를 내눈으로 보았대요! 이거 꿈인가...! 나도 유 명한 작가가 되어서 김준영 작가님 처럼 멋진 분이 되고 싶다. (그대 작가님 의 일기가 참 대단하다.) (위머 그리는 법은 크레파스에 기름이 다르면 녹는다를 써 면 좋다)

소감문

(작가의 꿈)

작가와의 만남 후 나의 표정은?

행복도 상상...  
해해! Happy!



# 김준영 작가와의 만남 소감

※ 김준영 작가의 강연을 듣고 느낀 점을 적어보세요.

일 시 2025년 9월 15일 일요일

강연장소 강당 3학년 2반 이름 박수아

소감문

처음에는 난 남달라가 왜? 남달라인지 잘 몰랐는데 김준영 작가님께서 한꺼번에씩 알려주셔서 난 남달라와 뜻이 성별! 등등 많은 것들을 알려주셔서 이해가 잘 되고 이제는 잘 알 것 같아요! 그리고 김준영 작가님에 사인을 받을 때도 너무 좋았고 영서까지 받아서 너무 좋고 또 노력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김준영 작가님이 남달라와 위키를 그리는 법을 알려주셔서 너무나! 좋았어요! 그리고 김준영 작가님이 이해를 하기 쉬고 재밌게 알려주셔서 집중을 할 수 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할아버지나 손들이 많았어요! 그럴 때가 아이, 저의 글씨를 읽어볼 거예요~ 김준영 작가님! 저희를 즐겁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다시 만한다면 꼭 얘기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김준영 작가님에 선수가 대박이기도 해요! 그것을 저도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김준영 작가님에 사인이 너무 예뻐요! 그리고 김준영 작가님에 월드컵 너무 예뻐요!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만나 뵙고 싶네요! 다음 기회를 노려보아요! 감사합니다 김준영 작가님 감사했습니다!

작가와의 만남 후 나의 표정은?





# 김준영 작가와의 만남 소감

※ 김준영 작가의 강연을 듣고 느낀 점을 적어보세요.

일 시 2025년 9월 15일 월요일

강연장소 강당 3학년 2반 이름: 한지연

소감문

오늘, 김준영 작가님을 만났다. 물론, 도서관에서 영상으로 1번은 작기심을 영상 보고, 봤지만, 처음 만날때 너무 떨렸었다. 과연, 무엇을 할까? 그리고, 아무 이유도 없이 강당에 와지만, 김준영 작가님을 만나고, 실제로 보니 신기했다. 왜냐하면, 거의 이런적은 처음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때, 싸인도 했는데, 오늘 책을 안가져 와서, 싸인은 받지 못했지만, 내가 똑같이 그려서라도, 추억을 남기자! 생각했었다. 그리고, 무인가 우리반선생님 성함 뒤에기 살짝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김준영 작가님의 준영을, 영준으로 바꾸면 앞뒤랑 바꾸면 똑같이 때문이다, 근데, 2교시 ~ 4교시? 정도 오래 앉아 있어서, 몸이 버겁 - 하기도 했지만, 강당에서 한것중 가장재미 있었다! 근데, 중간에 위기가 왔다! 너무 졸렸다. 하지만, 깨끗하게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데, 책은 잊었지만, 책을 안가지고와서 싸인을 못받아 서운했지만, 그래도 좋은 추억 하나를 또 남겨서 기분이 좋았던 하루인것 같다.

다음에도 오셨으면 좋게다! 끝!

작가와의 만남 후 나의 표정은?





# 김준영 작가와의 만남 소감

※ 김준영 작가의 강연을 듣고 느낀 점을 적어보세요.

일 시 2025년 9월 15일 월요일

강연장소 강당 3학년 2반 이름: 김리엘

소감문

저는 김준영 작가를 만나기 하루 전부터 너무 설레습니다. 그리고 김준영 작가를 만난 오늘, 김준영 작가님이 이야기 조금해보고저도 귀서 작가가 되고 싶다는 꿈이 조금 커진 것 같습니다. 도서관에서 한 나 남달래 라는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보는 활동에서 김준영 작가를 처음 알았기 때문에 이번엔 김준영 작가님의 강연을 듣고 김준영 작가님과 김준영 작가님이 쓰신 책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남달래 라는 책만 알고 있는데, 김준영 작가님께서 할아버지와 손들이는 단아어, 그럴 때가 있어, 저의 금새기 라는 책도 알았습니다. 지금도, 앞으로 김준영 작가님이 쓰신 책들을 전부 다 읽어보는 게 저의 목표가 됩니다. 그리고 김준영 작가님이 달라가 말미잘 수영을 어려워 하는 것처럼 김준영 작가님께서도 수학, 과학을 어려워 하셨는데 물리학가를 들어가신 게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친구들이 모두 멋진 직업을 가지신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멋진 직업을 가지고 싶습니다. 작가를 또 만나고 싶습니다.

작가와의 만남 후 나의 표정은?







# 김준영 작가와의 만남 소감

※ 김준영 작가의 강연을 듣고 느낀 점을 적어보세요.

일 시	2025년 9월 15일	요일	월요일
강연장소	강당	3학년 2반	이름: 이봉

소감문	<p>작가님께</p> <p>안녕하세요 작가님. 저는 3-2반 이봉이에요.</p> <p>저는 평소에 그림책, 동화책을 좋아해요 그런데 금요일에 김준영 작가님의 &lt;난 날달라&gt; 책을 읽었어요. 너무나 재미있었어요. 달라 말도 귀머, 쿨쿨, 풀리의 이야기도 들었고요. 저도 달라처럼 공부는 귀찮고 제 꿀을 찾아가고 싶어요. 하지만 엄마는 모든 것이 공부에 달려있다고 하죠. 작가님의 생각은 어떤가요? 아무래도 모든 것이 공부에 달려 있진 않은 것 같아요. 작가님의 책을 읽고 달라처럼 '나도 내 마음대로 해보아!'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작가님 덕분에 크레파스에 지름을 발라 색인하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부끄럽지만 제 꿈은 웹툰 작가, 동화책 작가, 소설 작가, 그림책 작가예요. 오늘 제가 꿈에도 못봤던 작가님을 보았대니 정말 상상도 안 났어요. 작가님께서는 &lt;할아버지와 손동이는 뭘 읽어야&gt;와 &lt;그림책이 있어&gt;, &lt;저디, 공세기&gt;라는 책도 소개해주셨는데, 저도 빨리 그 그림책을 읽어보고 달라, 귀머, 쿨쿨, 풀리가 그려져 있는 모든 주문 제작에 시킬거예요. 엄마는 "그런 그림책들은 다 애기들이 읽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애기들이 읽는 책보다는 어른들, 노인들, 어린이, 아기들이 동감하여 보는 재미있고, 본받을 점 많은 훌륭한 그림책 같아요.</p> <p style="text-align: right;">2025년 9월 15일 이봉 올림</p>
-----	---

작가와의 만남 후 나의 표정은?	
-------------------	--



# 김준영 작가와의 만남 소감

※ 김준영 작가의 강연을 듣고 느낀 점을 적어보세요.

일 시	2025 년 9월 15 일 월요일		
강연장소	강당	3학년 2반	이름: 선유라

10. 김준영 작가님에게 안녕하세요 김준영 작가님 저는 3학년 2반 선유라예요! 오늘 김준영 작가님이 난 남달라 책을 어떻게 만들게 됐는지 또 여러 가지 를 소개해 주시고 알려 주셔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감사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작가님이 쓰신 다른 책도 소개해 주시고 무엇을 본데서 만들었는지도 알려 주셔서 큰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또 작가님에 대해 동기도 직업이 무엇인지 알려 주시고 그리고 질문에 답도 해 주시고 작가님이 좋아하시는 음식, 나라 들도 알려 주셔서 작가님을 더 잘 알게 돼 었고 만날 수 있다면 작가님을 또 만나서 작가님에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또 마지막에 사인도 난 남달라 책에 사인도 해 주시고 엽서도 주셔서 너무 너무 좋은 추억 만들었고 또 너무 감사 했어요 또 마지막으로 난 남달라 책에 사인 해 주실 때 좋은 말도 같이 해 주셔서 안 그래도 기분이 좋았는데 김준영 작가님이 좋은 말도 함께 해주셔서 기분이 두 배로 좋았어요 김준영 작가님이 너무 착하셔서 김준영 작가님 앞으로 잘 지내세요! -3학년 2반 선유라가

소감문

작가와의 만남 후 나의 표정은?

김준영 작가님



# 김준영 작가와의 만남 소감

※ 김준영 작가의 강연을 듣고 느낀 점을 적어보세요.

일 시 2025년 9월 15일 요일

강연장소 강당 3학년 2반 이름: 김세아

소감문

TO. 김준영 작가님께

안녕하세요?

작가님이 만드신 난 남달라! / 글 읽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피아노를 치는데 피아노를 치는 것 보다 게이름  
 공부하는 게 더 좋았거든요. 다른 친구들은 공부하는 것 보다 피아노 치는 걸 좋아하나  
 봐요. 하지만 사람은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른 것처럼, 취미도 다르게 달라요.  
 저도 나중에 작가님처럼 멋진 유명한 작가가 되는 게 꿈이에요. 저는 며칠전 꿈에서 작가가 되어서 여러가지 책을 만들고 유명해져서 다른 나라에도 저의 책이 출세하는 꿈을 꾸어서 너무 기뻐서 아빠에게 말했더니 칭찬을 해주었어요. 제 말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 9. 15. 요일  
 김세아 올림

작가와의 만남 후 나의 표정은?







# 김준영 작가와의 만남 소감

※ 김준영 작가의 강연을 듣고 느낀 점을 적어보세요.

일 시	2025년 9 월 15 일 월요일		
강연장소	강당	3 학년 2 반	이름: 윤연아

일기	<p>나는 오늘 강당에서 김준영 작가님을 만났다 먼저 작가님께서 책소개를 해주셨다 난 남달라 라는 책은 밝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거의 공世子 등등의 책은 치유 받는 책이었다 작가님께서 크레파스로 색칠한 다음 기름을 그위에 묻히면 매끈매끈 한 다는 것이 신기하고 재미있어 보였다 "나도 집에 가서 동생과 같이 해보면 재미있고 신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저의 공世子를 소개해 주신 것이 제일 기억에 남았다 왜냐하면 돌고래가 바다에 적응이 되어 잘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오늘 김준영 작가님을 만나게 되어 좋았고 재미있었다 나도 나중에 작가가 되면이떨까 라는 생각을 했다 ♡ 나중에 김준영 작가님을 뵈려면 싸인을 받고 싶다</p>
소감문	

작가와의 만남 후 나의 표정은?	      
-------------------	---

# 함께 글 쓴 금마초등학교 친구들

## 3학년

김라엘	김라희	김민재	김세아	김인혜	김태린
박서후	박설아	선유라	양유준	오연아	이봄
이하은	최지후	한지수	한지연	한지연	

## 4학년

김가온	김다희	김윤	노하민	배준서	배지윤
심서린	양솔지	이하은	조아원	조아준	



이름도 생각도 남달라

**달라도  
좋아요!**

